등고선

단편소설 당선작 – 김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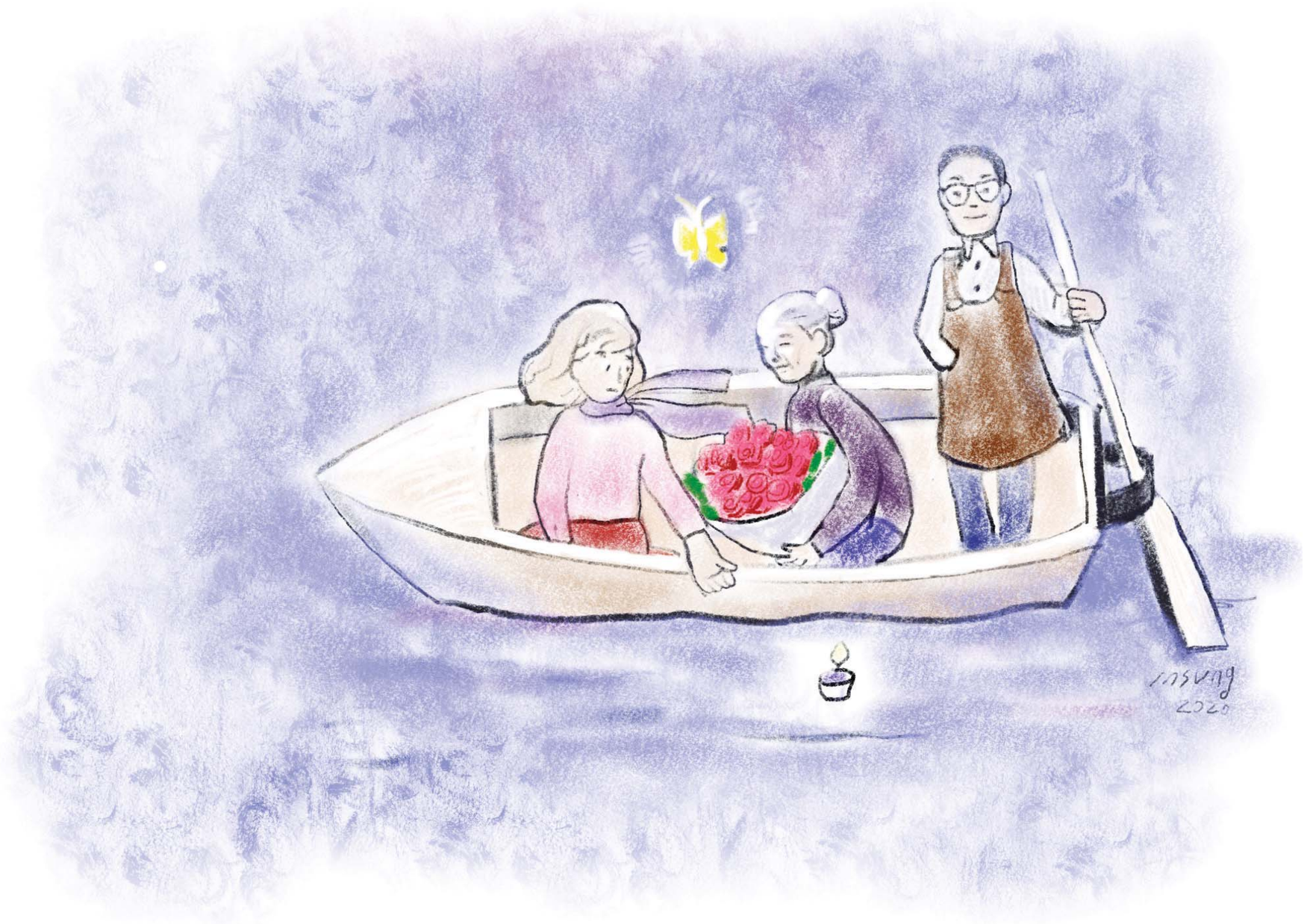

그림 = 이인성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 졸업, 동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졸업, ▲광주미술상,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조선대 올해의 작가상 수상,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2017 빛' 초대 작가

기상캐스터는 한낮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했다. 삼복이 지났어도 불볕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그녀의 긴소매 원피스는 더위와는 무관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스카프에 눈길이 머물렀다. 색채는 구원이라고 한 피카소의 말이 생각났다. 몽환적인 느낌의 보랏빛은 인공적인 합성염료로는 얻을 수 없었다. 자연에서 얻은 색에 강렬한 조명이 반사되면서 이색적인 색채를 만들었다. 다소 밋밋한 그녀의 원피스도 보랏빛 스카프로 인해 돋보였다.

길거리 행사는 날씨에 민감했다. 여름은 소나기가 흔한 계절이었다. 날마다 날씨를 확인하고 덮개를 준비해도 어느 순간 흙냄새가 코끝에 느껴지면 허둥대기부터 했다. 특히 실크는 습기를 잘 빨아들였고 다른 천들도 미세하게 구김이 지면서 형태가 일그러졌다. 행사 기간은 보름이었다. 이제 삼 일만 버티면 끝이었다. 행사장은 화랑과 화방, 표구점들이 밀집된 곳이었다. 오래된 공방 또한 많아서 언제부턴가 예술의 거리로 불렀다. 가게마다 인도 앞까지 내놓은 각양각색의 오래된 물건들은 인사동 거리를 연상케 했다. 몇 년 사이 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축제가 부활하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젊은 층을 겨냥한 소품 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활기가 살아났다. 편승하듯 몇 번 기획 행사로 길거리 판매를 시도했다. 적어도 찌는 듯한 더위와는 무관했다. 한 달 전, 이사장이 공방에 찾아와 말했다.

"곧 가을이 올 테니 앞서서 스카프전을 합시다."

예술이라는 장르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예술품에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이런 때일수록 일반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한다며 길거리 판매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생색내듯 햇빛예술촌 천막과 현수막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건 단가인데……."

생각에 잠긴 듯 손으로 턱을 매만졌다. 저렴하게 일이 만원 대에서 오만 원을 넘지 말자고, 그러잖아도 튀어나온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그건 원가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자 염색 재료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며 재고 떨이로 생각하라고 했다. 재고라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이사장은 잔뜩 일그러진 내 표정을 흘깃 보더니, 경제 논리는 생각하지 않고 예술가라고 자존심만 내세우니, 작가로 활동한 지가 십 년이 넘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냐고……. 하고 싶을 말을 다 했다.

이사장이 나갔다. 나는 얼룩덜룩 염색물이 든 대야에 물을 채웠다. 복도 난간에 놓인 제라늄 화분에 냅다 부었다. 화분에서 넘쳐난 물이 아래로 쏟아졌다. 반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던 이사장이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숨듯이 공방으로 들어왔다. CD 플레이어에 「The Lost Opera」를 재생시켰다. 키메라의 높은 음색에 속이 뻥 뚫렸다. 그녀는 팝페라 창시자였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클래식과 팝을 조화시켰다. 유독 정통을 중시하는 클래식계에서 틀을 깼다는 말까지 들었다. 선구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그녀를 떠올리자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 색채는 구원이라고 한 피카소의 말이 생각났다
> 몽환적인 느낌의 보랏빛은 인공적으로는 얻을 수 없다
> 그녀의 원피스도 보랏빛 스카프로 인해 돋보였다

행사장인 예술의 거리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사람을 쫓듯 바짝 붙어가는 자동차의 기척에도 길을 비켜주는 이가 없었다. 마음은 조급해도 방법이 없었다. 건물 벽에 바짝 붙여 주차했다. 밤새 천막 주위에 어질러진 쓰레기를 치웠다. 트렁크에서 매대를 꺼냈다. 이력이 붙을 만도 한데 손은 여전히 더뎠다. 땀에 들러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고무줄로 질끈 묶었다. 목이 선득했다. 깜짝 놀라 자라목을 하고 돌아보았다. 얼린 생수병을 흔들며 공 선생이 웃었다. 그는 생수병을 내게 건네고 한쪽 발만 겨우 세운 매대의 다리를 움켜잡았다. 로봇을 조립하듯 철커덕철커덕 순식간에 완성했다.

"괜찮아요?"

잘 견디는 중이라고 말하려는데 엄살 부리는 아이처럼 목이 멨다. 지금 상황이 전부는 아닐 거라며 위로의 말까지 건네는 그의 오지랖에 속절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공방으로 돌아가려던 그가 뭔가 생각난 듯 몸을 돌렸다.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입가에 웃음을 달고 말했다.

"아침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랑 이사장이 결국 싸웠다는 것이다. 이사장이 고추 한 바구니를 사가면서 천 원을 준 게 발단이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삼천 원이라고 말했지만, 이사장은 천 원짜리가 한 장밖에 없다며 지갑을 꺼내 보였다. 지갑에서 오만 원 권을 발견한 할머니가 오백원짜리를 합쳐 사만 칠천 원의 거스름돈을 건네고 지폐를 받았다고 했다. 정당한 값을 요구하는 할머니의 당당함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 소란에 하나둘 공방 문이 열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흘끔거리자 이사장이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께 엄지를 척! 세워줬다며, 흉내 내듯 엄지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이곳의 터줏대감이었다. 햇빛예술촌이 간판을 올리고 만국기를 늘어트리기 전부터 텃밭에서 거둔 푸성귀를 팔았다. 약을 치지 않아 농작물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치를 알아보는 단골이 많았다. 이사장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무시하고 푸대접했다. 화장실 드나드는 걸 못하게 하라고 은근히 작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관리비라며 만 원을 내밀었다. 그때부터 당당하게 예술촌 일원이 되었다.

엄지를 세운 공 선생의 손에 눈이 머물렀다. 손등은 쇠에 긁히고 불꽃이 튀어 막일꾼 못지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도 흉터로 남았다. 그런 흉터들이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였다. 내 시선을 느낀 공 선생이 장난하듯 손을 쫙 펴더니 앞으로 내밀었다. 나도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 손 매듭과 손톱 선까지 염료 물이 들어서 여자 손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했다. 할머니의 뭉툭하고 나뭇등걸이 된 손을 보태면 못난이 삼총사 손으로 손색이 없을 터였다. 공 선생이 휘파람을 불며 공방으로 향했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 그것은 모두 바람 속의 먼지다……

공 선생이 되돌아서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전시를 앞두고 정신없었다. 아이의 입술이 꽃잎처럼 붉어졌다. 내뱉는 숨에서 단내가 났다. 바쁜 마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 시간 맞춰 약을 먹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엄마의 책무를 다했다고 여겼다. 아이는 일주일을 못 버텼다. 작은 입김에도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어서 마냥 안고 있을 수도, 보낼 수도 없었다. 아이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주변에서 쉽게 위로의 말을 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내 아이, 내 분신, 내 살과 뼈였던 장미를 흐르는 세월에 묻어가듯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었다.

정오가 되었다. 햇볕은 쇠도 녹일 듯 뜨거웠다. 바짝 달궈진 지열이 올라오면서 체감온도는 더 상승했다. 냉방이 된 사무실에서 나온 직장인들은 긴 팔 차림으로 그늘진 천막 아래를 지나갔다. 사원 카드를 목걸이처럼 매단 그들은 매대에 놓인 스카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바쁜 걸음들 사이에 멈춰 선 내가 역행하며 사는 사람 같았다.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매대 아래 처박아둔 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사장이 건네준 피켓에는 내 프로필과 '천연염색 스카프 파격세일'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지방 예술계에서 나름 유명 작가임을 내세우려는 이사장의 속셈이었다.

처음 예술촌에 입주하고 지방지에 실릴 때 만해도 내 모습은 빛이 났다. 서른, 열정을 표면에 내세워 질주하던 시기였다. 섬유 조형과 천연염색을 병행하면서 이 길로 들어선 지 어느덧 십 년이었다. 천을 여러 번 겹친 뒤 테두리를 두른 몰라 기법으로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무늬를 연출한 스카프가 호평을 받았다. 그런 호평에 한때는 우쭐했다. 하지만 그러한 호평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잣대는 될 수 없었다. 음식을 만들 때 정해진 레시피로 만들어도 조리 시간이나 불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염색도 마찬가지였다. 천과 시간에 따라 염료의 농도와 작가의 컨디션에 따라 달랐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옷이나 소품에 응용했지만, 예술과 대중의 경계에 머물렀다. 천연염색을 지도했던 교수는 말했다. 스스로가 작가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남들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싼 염료를 들여 기계로 찍어낸 공산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 만큼 실용성보다는 작품을 만들려는 장인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시를 위한 예술 작품과 대중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해가 많이 짧아졌다. 입추가 코앞이었다. 어둠이 대기를 떠돌자 거리에 정적이 맴돌았다. 점심을 걸러서 등이 휠 것 같았다. 장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에도 없었다. 마트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서둘렀다. 매대를 접어 차 트렁크에 넣었다. 소품은 상자에 담아 조수석에 놓고 스카프는 구겨지지 않게 뒷자리에 펼쳐 놓았다.

마트는 한가했다. 마이크를 쥔 직원의 호객행위에 발을 멈췄다. 제주에서 막 올라온 은갈치 한 팩이 만원이라고 했다. 한 팩을 집었다. 조림에 넣을 감자와 양파를 찾다가 장미를 보았다. 오늘의 세일 품목이었다. 현수막 아래 색색의 장미꽃이 양동이마다 담겨 있었다. 열에 들뜬 아이의 입술처럼 선홍빛이었다. 망연한 내 눈빛에 눈치 빠른 직원이 장미꽃 한 다발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받아들었다.

흐르는 물에 갈치를 씻고 감자껍질을 벗겼다. 갈치와 감자가 양념장에 졸여지는 동안 장미꽃을 손질했다. 잎을 한두 개만 남기고 떼어냈다. 가느다란 광목천에 한 송이씩 엮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창틀에 거꾸로 세웠다. 바람결에 느껴지는 장미 향에 코끝이 매웠다. 뭉근하게 졸여지는 갈치 냄새에 이끌려 주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끄고 냄비 채 식탁 위에 올렸다. 밥통을 열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위를 자극했다. 아이를 보내고도 악착같이 살아나던 본능이었다. 밥을 입에 넣고 씹는데 목이 멨다. 소주를 꺼내 머그잔에 따랐다. 소주와 함께 갈치살에 밥 한 숟가락, 감자에 또 한 숟가락 먹다 보니 한 공기를 비웠다.

> "스카프 잘 어울린다." 진희가 대답 대신 스카프를 매만졌다
> "비 예보는 없었어?" 나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다
> "비는 무슨." "날이 너무 더워서." … 진희가 피식 웃었다

아이의 서랍장 앞으로 갔다. 미키 마우스가 웃고 있는 서랍장에는 아이의 필체가 유서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듯이 쓴 제 이름 장미…… 서랍에서 잠옷을 꺼냈다. 식탁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등받이에 입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식탁에 놓인 엽서가 이지러져 보이더니 점점 뭉개졌다. 나윤이 말했다. 선배는 생각이 너무 많다고. 그렇다고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그 말이 맞았다. 죽을 만큼 생각을 많이 해도 어떤 결정이 쉬운 적은 없었다. 오히려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한발 물러서서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곤 했다. 장미가 내게 올 때도 그랬다. 하지만 장미를 품에 안았을 때 다짐했다.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물러터졌다는 말도 듣지 않겠다고. 그러나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뙤약볕에서 치르는 이따위 세일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색이 바랜 아이 잠옷을 종이 가방에 담으며 결심했다. 이틀 남은 거리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카페 조명이 지나치게 밝았다. 구석진 곳을 찾아 앉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이는 쇼핑백을 테이블 밑으로 밀어놓았다. 세븐, 이름에 걸맞게 7명이 회원인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다. 거리 판매를 정리하고 이사장에게 곤욕을 치르느라 이차에 겨우 합류했다. 친구들이 소란스럽게 들어왔다. 진희가 앉으면서 쇼핑백을 흘끔 쳐다보았다. 음료 주문을 마친 친구들은 맥락 없는 수다를 이어갔다. 쇼핑백을 흘끔거리는 진희를 의식했기 때문일까? 의기소침해진 나는 친구들과 섞이지 못했다. 그때 허공에서 진희와 시선이 얽혔다. 무슨 말이 든 해야겠다는 조급함에 말을 건넸다.

"스카프 잘 어울린다."

진희가 대답 대신 스카프를 매만졌다.

"비 예보는 없었어?"

나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다.

"비는 무슨."

"날이 너무 더워서."

진희가 피식 웃었다. 그리고 스위치만 켜면 자동으로 말하는 인형처럼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사람들은 날씨 예보가 조금만 틀려도 전화를 해댄다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이니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진희가 아무리 제 일에 대해 투정해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그녀가 부럽다는 듯 친구들은 쳐다만 보았다. 언제 짐을 빼게 될지, 불안증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 앞에서 할 말은 아닌 듯했지만, 아무도 진희의 말을 끊지 않았다. 진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다.

↗